



"2021년 우리 공동체의 키워드: 말씀(Read) · 기도(Pray) · 감사(Give Thanks)"

부활 제4주일(성소 주일)

2021년 4월 25일(제478호)

본당 주소: 425 Boulder Ct. #400, Pleasanton, CA 94566
(전화) 925-600-0177 / (FAX) 925-237-8423
사무실 e-mail: office@tvkcc.org, 웹사이트: www.tvkcc.org

주일 / 평일미사: 425 Boulder Ct. #400, Pleasanton, CA 94566
온라인 미사: 유튜브에서 'TVKCC mass' 검색

주일학교	온라인
신심단체	레지오 마리아: 온라인
	성령기도회: 온라인
	올뜨레야: 온라인
	항심 기도회: 온라인
성시간	일시 중단

미사	교중미사	오전 9시 - 10시
	평일미사	화, 목, 토요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Temporarily suspended
	Youth Mass	Temporarily suspended
고해성사	교중미사 전: 오전 8시 30분 - 8시 50분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0분	
유아세례	일시 중단	

해설_권현정(안젤라) 제1독서_김미정(안나) 제2독서_김미정(안나)

입당송 | 시편 33(32),5-6 참조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여셨네.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4,8-12 Acts 4:8-12

화답송 | 시편 118(117),1과 8-9,21-23,26과 28-29(22)

Psalms 118:1, 8-9, 21-23, 26, 21, 29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또는 ◎ 알렐루야.)

◎ The stone rejected by the builders has become the cornerstone. or: R. Alleluia.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사람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네. 제후들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네. ◎

○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for his mercy endures forever. It is better to take refuge in the LORD than to trust in man. It is better to take refuge in the LORD than to trust in princes. ◎

○ 당신이 제게 응답하시고, 구원이 되어 주셨으니, 제가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 I will give thanks to you, for you have answered me and have been my savior. The stone which the builders rejected has become the cornerstone. By the LORD has this been

done; it is wonderful in our eyes. ◎

○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we bless you from the house of the LORD. I will give thanks to you, for you have answered me and have been my savior.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for his kindness endures forever. ◎

제2독서 | 1요한 3,1-2 First John 3:1-2

복음환호송 | 요한 10,14 참조

◎ 알렐루야.

◎ Alleluia, alleluia.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 I am the good shepherd, says the Lord; I know my sheep, and mine know me. ◎

복음 | 요한 10,11-18 John 10:11-18

영성체송 |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집 짓는 이들이 내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새로 나오신 신자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얇는 이들을 위한 기도 요청

윤창섭 안드레아, 이한아 안나, Teresa Lee, 김종택, Yong Ah Lee, 이잠수, 최영숙 마리아, 김필순 루시아,

고은경 엘리사벳, 이순옥 안나, 윤정의 알폰소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에 지원하려는 예비신학생들을 면담하다 보면 성소 동기가 참 다양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처음 복사를 설 때 성체를 들어 올리시던 신부님의 모습이 멋있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며 만났던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서, 심지어 어릴 적 외국인 신부님이 주셨던 카스테라가 계속 먹고 싶어서 신학교에 갔다는 선배 신부님의 일화도 있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도 각기 다릅니다. 우정의 무대에 나와 "뒤에 계신 분은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라고 외치던 군인처럼 "하느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확실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고3 학생이 있는가 하면, 이 부르심이 성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확인해 보고 싶어서 예비신학생 모임에 나왔다고 말하는 조심스러운 청년도 있습니다.

부르심을 너무 확신해서 당돌해 보였던 학생도, 소심하고 용기 없어 보였던 청년도 신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면 앞으로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처음에 부족해 보이는 성소 동기를 안고 입학했던 신입생들이 신학교 생활을 통해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신학생 양복이 어색해 보였었는데 어느새 수단 입은 모습이 제법 잘 어울리고, 복사 서는 것도 어색해 보였는데 부제품을 받고 제단에서 부제 복사를 섭니다. 그리고 입학한 지 10년 뒤, 이들은 모두 사제 서품식에서 "예, 여기 있습니다!"라고 부르심에 응답하며 예수님을 닮은 목자로 태어납니다. 예비신학생 양성과 사제 서품식 준비를 동시에 하는 성소국에서 일하다 보니, 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일까요?

그 답은 바로 오늘 복음 말씀에 있습니다. 목자께서 정말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성소 주일에 우리는 요한복음서 10장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착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착한 목자는 이름을 하나하나 부를 정도로 양들을 잘 알고, 길 잃은 양이 생기면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양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이런 목자는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시작하는 성소 동기는 조금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개개인의 역량은 조금 부족해도, 그런 목자께서 함께 걸어가시기에 이들은 예수님을 닮아 착한 목자가 되어갑니다.

제58차 성소 주일을 맞아 우리의 성소를 생각해 봅시다. 각자 부르심 받은 자리는 다르지만 부르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목자께서 정말 좋은 분이시기에, 그분께서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양들이 할 일은 목자의 목소리를 잘 알아듣고, 목자를 한 걸음씩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양들끼리도 서로를 격려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사제 성소, 수도 성소, 그리고 평신도 성소로 '성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의 성소를 위해 기도해 주며 함께 걸어간다면, 착한 목자께서는 앞서 걸어가시며 흐뭇하게 미소 지으실 것입니다.

최요안 세례자요한 신부 | 서울대교구 성소국 차장

<p>김수정 REALTOR® Soo Jung (Julia) Kim KELLERWILLIAMS DRE 02049482 925.416.9249 kw julia.kim@kw.com</p>	<p>KOREAN B.B.Q 영동 순두부  2768 San Ramon Rd. Dublin, CA 94568 925-551-0825</p>	<p>STEVE G KIM DDS Family & Cosmetic Dentistry Dr. 김진만 치과병원 111 Deerwood Rd. Suite350 San Ramon, CA 94583 925-718-8970 / sgkdental@gmail.com www.sgkdental.com</p>	<p>Tri-Valley Orthodontics Jesse H. Ko DMD / Anne Yoon DDS 111 Deerwood Rd. Ste. 185 San Ramon, CA 94583 ph. 925-272-7868 www.tri-ortho.com</p>
<p>광고를 모집합니다. 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650-305-5181</p>	<p>혁신적인 향노화 제품과 훌륭한 사업기회  민주란 아우레아 253-468-3030 jooranmin@gmail.com</p>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 박사 이준 침, 안약, 체중조절, 통증조절, 체질감별, 건강상담 6990 Village Pkwy #212 Dublin, CA 925-765-9755</p>	<p>좋은 사람들, 좋은 이웃들이 만들어 가는곳 신세계 여행사 SHINSEGAE TRAVEL 510-688-0155 이 베로니카 510-688-0157 이 레이몬드</p>



5분 묵상

착한 목자이신 주님은 오늘도 당신을 닮은 목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고대하고 계시며, 당신의 사랑이 그들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이 세상에 지속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이러한 착한 목자의 길을 걸어갈 성소자들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발전된 사회가 우리들의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옛날에 일본 어느 부락의 지도자가 하느님께 인간들을 사랑하심에 대한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설교를 들은 후 그에게 물었습니다.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좋으신 하느님께서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그리스도교 신앙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까?" 성인은 슬픈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느님께서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도록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그분의 부르심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일꾼들을 부르고 계시지만, 우리들의 무관심 속에서 주님의 그 부르심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영재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어린 나이의 자녀들에게 외국어와 과학 등을 미리 교육시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교육학자들 역시 7세 이전의 조기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동의하지만 단순한 지식보다

도 먼저 성품과 꿈을 키워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식은 나중에 성장하고 나서도 충분히 습득할 수가 있지만 7세 이전에 형성되는 인격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는 어떤 교육을 받느냐,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성품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아이들의 평생 비전이 형성 되는 것도 이 시기입니다. 이 때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면 아이들은 역사학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 과학과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들을 들려주면 커서도 과학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아놀드 토인비 역시 자신이 역사가가 된 이유에 대해 어려서부터 들었던 부모님의 이야기가 원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들이 어떤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그대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이야기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 해 줄 수 있다면 우리들의 아이들은, 그들 앞에 어떤 삶이 다가오더라도, 모든 것을 아름답고 행복한 삶으로 바꾸며 살아갈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압니까? 예수님을 닮은 착한 목자가 바로 우리들의 아이들에게서 나올지 말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야기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굿뉴스에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기간: 2020년 11월 29일부터 2021년 11월 27일까지

"당신이 천주교인이오?"



성 요셉의 해

PROCLAMATION OF THE YEAR OF ST. JOSEPH

기간: 2020년 12월 8부터 2021년 12월 8일까지

<p>CPA 조미정 (카타리나) 조미정 공인회계사무소 6500 Dublin Blvd. #206 Dublin CA 94568 Tel) 925-803-0200 jenny@jchocpa.com</p>	<p>새 차 13개 자동차 매장에서 도와 드립니다 HANLEES AUTO GROUP</p>  <p>작성 직통: 510-283-6310 CELL: 510-776-5856</p> <p>HILLTOP FREMONT FAIRFIELD NAPA DAVIS SUE CHO CELL: 530-220-2848</p>	<p>PARK CHIROPRACTIC Dr. Joon Park Office (925) 355-1450 Cell (925) 997-1257 7027 Dublin Blvd, Suite #101 Dublin, CA 94568</p> 	
<p>광고를 모집합니다.</p> <p>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650-305-5181</p>	<p>광고를 모집합니다.</p> <p>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650-305-5181</p>	<p>광고를 모집합니다.</p> <p>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650-305-5181</p>	<p>광고를 모집합니다.</p> <p>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650-305-5181</p>

■ 부활 판공성사 기간 연장

- 아직 성사를 보시지 못한 신자들을 위하여 판공성사 기간을 5월 15일(토)까지 연장합니다.
- 주일미사 전: 오전 8시 30분 ~ 8시 50분
-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0분
- 장소: 센터 1층
- 후면에 주차하신 후 봉사자의 안내를 받으십시오.

■ TVKCC 온라인 묵주기도 안내

- 일시: 매주 수, 금, 오전 9시 30분 - 10시
- Zoom ID: 821 2573 3564
- Passcode: 1004

■ 4월 반모임일정

마태오 1	4/30(금) 7:00 PM	온라인	408-318-7588
루카 1	4/25(일) 8:00 PM	온라인	408-833-0547

■ 온라인 미사참례 헌금 안내

- 직접 미사에 나오시지 못할 경우 주일헌금, 교무금 등 각종 헌금은 당분간 Check을 센터로 우편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www.tvkcc.org/giving-2

■ 온라인 미사예물 봉헌 안내

- 온라인 미사에 미사예물을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 봉헌 신청: 전례부 이메일, tvkccliturgy@gmail.com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www.tvkcc.org/prayer_requests

■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영어미사	토요특전				
\$450	-	-	\$1,920	\$40	\$40	\$2,460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김순삼(4,5), 박정배(11,12/2020), 박주암(4), 이종구(1-4), 이태원(4), 조상준(1-3), 조현재(1-4)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이종구(1-4)
- **Bishop's Appeal**
이종구(1-4), 이태원(4)
- **감사헌금**
최광석 아브라함 가정

성소를 위한 기도

- 종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아멘.



2021년 우리 공동체의 키워드	말씀	기도	감사
하느님 말씀에 가까이 머물기 위해 노력합니다. 주어지는 상황들을 말씀에 비추어 식별합니다.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뜻과 내 뜻을 일치시켜 갑시다. 나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상 속에서 감사한 일들을 발견하고 고지 노력합니다.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사의 한마디를 건넵니다.	



보편 지향: 금융계 / Universal Intention : The World of Finance

금융 질서를 정립하여 시민들을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게 금융 책임자들이 정부와 협력하도록 기도합니다.

Let us pray that those in charge of finance will work with governments to regulate the financial sphere and protect citizens from its dangers.

■ 센터 방문 및 미사참례 시 준수 사항

- 자신과 공동체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합니다.
- 미사 전 과정(영성체 제외)과 미사 후 마스크 착용합니다.
- 최소 6피트 거리 유지합니다.
- 미사 후 즉시 차에 탑승, 귀가합니다.

■ 고해성사 시간 및 본당 신부님 면담 안내

- 주일: 오전 8시 30분 - 8시 50분
- 평일(화, 목, 토): 오전 9시 - 9시 20분
- 면담: 사무실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